

오피니언 > 칼럼

이준호 칼럼

AI 시대 너머에도 소통과 실패의 축적이 필요하다

2026-08-10 13:00:01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 🔗 🔍

7월 말 우리나라 주요 그룹 총수들과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SF AI) 선언을 발표했다. 그날 발표 중 필자가 주목한 것은 ‘AI 기본사회’였다. AI가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되어 전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격차도 줄이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인 동시에 AI 세계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전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생물학자인 필자는 새롭게 열려가는 시대에 대해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늘었다. 석기시대의 사람이나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나 그 뇌의 해부학적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 허약한 편에 속하는 인류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에는 무리를 이루고 이루어낸 협동이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었다. 그 기본적인 힘의 근원은 지금도 변하고 있지 않은데, AI 시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개인화되는 경향이 깊어졌다. AI 시대가 그런 경향을 훨씬 강화시켰다. 사람들이 AI와는 친밀한 대화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 과연 이런 변화가 인간이 여전히 지구의 주인으로 머무는데 도움이 될까? 중요한 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혼자서 생각보다는 여러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합이 훨씬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믿기에 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AI 시대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소통의 사랑방이 AI 시대 필수템 되길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다. 협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 AI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친밀한 소통이라고 믿는다.

필자는 30여년 전 연구실을 처음 열었을 때 아주 작은 방 안에 교수용 책상과 실험용 벤치가 함께 놓여 있는 공간을 사용했다. 그런 공간에 굳이 마련한 것은 원탁이었다. 그 원탁에서는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도 먹고, 가끔은 캔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그렇게 원탁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 시시콜콜 생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끔은 엉뚱한 연구 아이디어도 공유된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협동이 쉬워지고 어려운 연구도 함께 뚫어나가는 힘이 된다.

지금도 필자의 연구실에는 원탁이 놓여있다. 작은 실험실에서의 시도지만 30년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한다. 필자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머무는 곳에 편하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만드는 원탁이 놓여 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오피니언

경제시평

유 일본 대중초임 상승과

글로벌포커스

인도가 만난 두 동아시아

금융진단

AI 무한질주 시대, ‘국가전야 할 것들

신문로

유 ‘서·논술 수능’에 대한

내일의 눈

방심은 이르다, 쿠팡·스벅

내일시론

정부·서울 주택정책에 던진

인터뷰/피플

[인터뷰] 조용호
“시민과 함께 순

2026.08.20

[인터뷰] 신다혜
공지능이 배우·

2026.08.20

[인터뷰] 김석규
국 찬스가 작

2026.08.20

[인터뷰] 질 평
장] “인공지능

첨화일 것이다.

AI 시대와 그 너머에서도 잘 살아남기 위해서 AI와 사람이 각각 갖추어야 할 덕목이 또 하나 있다. 실패의 기억을 축적하는 것이다. 얼마 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세계한인과학자 대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AI와 기초과학의 발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면서 한 참석자가 실패한 연구 결과를 버리지 말고 잘 쌓으면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을 듣고 무릎을 쳤다. 그래, 성공의 경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쌓는 것이 큰 성공의 올바른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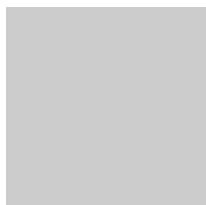
실제의 예를 노벨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RNA 간섭 현상을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앤드류 파이어 교수와 크레이그 멜로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전부터 RNA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반대편 가닥의 RNA(이를 안티센스 RNA라 부른다)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그 RNA에 결합해서 단백질로 해석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실험이 많이 시도되었는데, 성공적 결과를 얻으면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었지만 성공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실험은 아무 데도 발표되지 못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엄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안티센스 RNA가 아니라 두 가닥 RNA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런 현상을 ‘RNA 간섭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 현상의 발견이었다. 실패의 축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낸 대표적 사례다.

실패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인재 만든다

AI에게도 실패 데이터의 축적이 균형잡힌 결론 도출에 너무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더욱 그렇다. 실패의 경험을 쌓고 그 원인도 잘 분석해 차곡차곡 쌓으면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실패를 용인해야 하고, 나아가 실패를 장려해야 한다. 최소한 인재를 키워내는 현장에서는 그래야 한다.

필자의 연구실에 들어오는 인턴이 첫날 듣는 교수의 요구사항은 ‘이번 인턴의 목표는 실패를 쌓는 것’이다.



이준호

서울대 교수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주요기사

- 현역의원과 전선 다툰 장동혁...당권 강화냐, 사퇴 위기냐
- 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100조 대형기금 탄생
- 베센트 “재정적자 감축”에도 금리상승
-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소부장 육성 '시동'

많이 본 뉴스

- 1 마운자로 찾은 2030, 보훈 입 땀 ‘날벼락’
- 2 106개국 선수단 대구스타입장...세계마스터즈육상막
- 3 한국, 미·러 손잡고 북극간다...전쟁 후 평화시대
- 4 과학고 입시, 면접 전 서류
- 5 “북극항로 녹고 있고, 다으면 우회 예정”
- 6 ‘의사 스스로 면허관리’ 추진...독립성 확보·국민신관건



